

현대 일본 가톨릭교회의 위기와 대응: 샷포로 교구를 중심으로

정미지

홋카이도대학, 문학원 박사과정

들어가는 말

1. 일본 가톨릭교회의 위기
2. 정착에서 정체, 위기로: 샷포로 교구의 사례
 - 2.1. 성직자 감소와 고령화
 - 2.2. 신도 감소 및 냉담자 증가
 - 2.3. 코로나19
3. 대담한 재편 논의와 실천
 - 3.1. 사목 체제 개편
 - 3.2. 장기적 교구 재편 논의
 - 3.3. 시노달리타스의 실천 요구
4. 급격한 변화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 4.1. 교회의 변화와 위기의식
 - 4.2. 변혁을 가로막는 경직된 교회 문화
 - 4.3. 교구의 미래를 위한 제안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2023년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존의 오사카 대교구와 다카마쓰 교구를 통합한 오사카 다카마쓰 대교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¹⁾ 발표 직후에 간행된 오사카 대교구의 소식지를 통해 이번 통합이 당사자인 교구조차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결정됐음을 알 수 있는데,²⁾ 깜짝 발표에 대해 도쿄 대교구의 기쿠치 이사오(菊地 功) 대주교는 일본의 교구는 20세기 초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구획되어 현재 신자 수와 피리가 있으며, 이번 통합은 성소 및 사제 부족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대처라고 설명했다.³⁾

일본 교회의 규모에 비해 교구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으나,⁴⁾ 1972년 나하 교구의 승격 이후 반세기 동안 이어졌던 16개 교구 체제가 붕괴됐다는 점에서 다카마쓰 교구의 사실상의 흡수 통합은 2020년대 일본 가톨릭교회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통해 일본 교회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일본 가톨릭교회의 위기

2015년 더 위크는 가톨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유럽, 미국 등과는 대조적으로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이 향후 교회의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⁵⁾ 그러나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일본 교회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17세기 에도 막부가 금교령을 시행한 이래, 일본의 가톨릭교회는 250년에 이르는 긴

1) “Resignations and Appointments, 15.08.2023”, *Daily Bulletin of the Holy See Press Office*, (2023.8.15),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en/bollettino/pubblico/2023/08/15/230815a.html>(접속일: 2023.10.31).

2) 「大阪高松大司教区設立に向けて」, 『大阪カトリック時報』, 第846号(2023.10.1.), https://www.osaka.catholic.jp/no_side/jiho/2023/2310jiho/202310-all.pdf(접속일: 2023.10.31), 1.

3) 菊地 功, 「2023年聖母被昇天の祝日@東京カテドラル」, 『司教の日記』, (2023.8.15), <https://bishopkikuchi.cocolog-nifty.com/diary/2023/08/post-0bf96d.html>(접속일: 2023.10.31).

4) 「21世紀の日本の教会の展望ー司教たち大いに語るー」, 『東京教区ニュース』, 第178号(2000.1.1.), <https://tokyo.catholic.jp/info/news/11281/> (접속일: 2023.10.31).

5) The Week Staff, “Catholics in crisis”, *The Week*, (2015.1.9), <https://theweek.com/articles/494879/catholics-crisis>(접속일: 2023.10.31.).

박해의 역사를 겪었다. 이 시기 신자들은 순교를 택하거나 막부의 감시를 피해 신앙을 숨겨야만 했다.⁶⁾ 이후 1873년에 메이지 정부가 금교령을 철폐한 데 이어 1945년에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도 종지부를 찍었다. 곧바로 전국 각지에 진출한 수도회가 교육, 의료,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선교활동에 나섰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일본인 성직자도 대거 배출되면서 전후 일본 사회에서 복음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다신교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신앙은 쉽게 뿌리내리지 못했고, 때마침 고도경제 성장과 맞물려 사회 전반에 세속화가 빠르게 퍼져 나갔다. 1990년대 버블 붕괴 후에는 컬트 종교에 얽힌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종교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톨릭 교세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유독 복음화가 더딘 국가로 꼽힌다.⁷⁾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가 교회의 위기를 한층 심화시켰다. 2023년 일본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며 출산율은 1.2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⁸⁾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가톨릭교회가 유아세례를 통해 교세를 유지, 확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더욱이 2019년에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학대를 고발하는 기사가 보도됐고⁹⁾ 같은 해 전체 교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16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불러일으켰다.¹⁰⁾ 2010년대 세계 각국에서 가톨릭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성추문 사태가 일본에서도 재현된 것이다.¹¹⁾ 설상가상으로 다음 해에는 코로나19

6) 소위 가쿠레키리시탄 (隠れキリシタン)이라 불린다.

7) Alexander Martin, “Catholicism Fails to Take Root in Japan”, *The Wall Street Journal*, (2014.8.12), <https://www.wsj.com/articles/BL-JRTB-17636>(접속일:2023.10.31).

8) 「去年の出生率1.26で過去最低 7年連続で前年を下回る」, 『NHK』, (2023.6.2),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602/k10014086241000.html>(접속일:2023.10.31.); 「10人に1人が80歳以上に 総務省人口推計」, 『NHK』, (2023.9.17.),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917/k10014198601000.html>(접속일:2023.10.31).

9) 広野 真嗣, 「カトリック神父が少年に性的虐待 東京サレジオ学園で2人の元園児が被害を訴えていた」, 『文藝春秋』, 2019年3月号(2019.3.9), <https://bunshun.jp/articles/-/10781>(접속일: 2023.10.31).

10) 高見 三明, 「2019年「聖職者による未成年者への性虐待の対応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と課題」,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20.4.7.), <https://www.cbcj.catholic.jp/2020/04/07/20513/>(접속일:2023.10.31); 「日本のカトリック聖職者による児童性的虐待」 訴えは16件 司教協議회가調査結果を発表, 『Christian Today』, (2020.4.7), <https://www.christiantoday.co.jp/articles/27922/20200407/catholic-priest-sexual-abuse-in-japan-investigation.htm>(접속일:2023.10.31).

11) “Cries of abuse in Catholic Church start to be heard in Japan”, *The Mainichi*, (2019.12.14),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191214/p2g/00m/0fe/040000c>(접속일:2023.10.31.); Yuri Kageyama,

사태가 발생했다. 각 교구는 즉각 미사 및 공동체 활동을 중단하는 등,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교회는 더욱 활기를 잃어버렸다.

코로나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던 2022년에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 총리의 암살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신흥 종교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종교 2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¹²⁾ 신학자이자 목사인 세키가와 야스히로(関川 泰寛)는 기독교를 빙자한 신흥 종교에 대한 과열된 보도나 인터넷 여론으로 인해 이와는 무관한 크리스천이 신앙과 종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¹³⁾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베 암살사건 이후 신흥 종교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났다.¹⁴⁾

이처럼 오랜 박해 끝에 복음화의 희망을 엿봤던 전후 일본 가톨릭교회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에 더하여 최근 수년간 교회 안팎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8월에 발표된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를 위한 일본 교회의 답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사제 및 수도자의 감소와 소명의 격감, 평신도의 감소와 고령화, 어린이와 청년의 부재, 회의와 이벤트로 피폐해진 분당, 교회의 자금 부족, 신자인 직원이 거의 없는 가톨릭 시설, 교회 내부의 불일치, 사회로부터의 인지도 저하 등과 같은 과제다. 교구나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현재 일본 교회의 공통된 과제다.¹⁵⁾

한편 하나의 교구가 본섬 전체를 관할하며 다른 교구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시코쿠를 관할했던 다카마쓰 교구와 가장 유사한 교구는 일본 최북단의

“Japan Catholic Church sued for damages in alleged sex abuse”, *AP News*, (2020.9.25), <https://apnews.com/article/7a947193a18318fa2b1e43346502ca7a>(접속일:2023.10.31); 「カトリック聖職者による性暴力 被害女性が提訴 国内で初」, 『Christian Today』, (2020.10.2), <https://www.christian-today.co.jp/articles/28579/20201002/catholic-priest-sexual-abuse.htm>(접속일:2023.10.31).

12) 大井 真理子, 「安倍氏殺害事件で注目を集める「宗教2世」」, 『BBC News Japan』, (2022.7.3), <https://bunshun.jp/articles/-/10781>(접속일:2023.10.31).

13) 関川 泰寛, 「安倍元首相の暗殺とカルト宗教 そしてキリスト教」, 『日本神学研究センター』, (2022.7.20), <https://jcti.center/assertion/>(접속일:2023.10.31).

14) 「宗教への「不信任高まった」4割 一築地本願寺調査：仏教への抵抗は少ないが 関心も低い?」, 『nippon.com』, (2023.4.7), <https://www.nippon.com/ja/japan-data/h01645/>(접속일:2023.10.31).

15)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第16回世界代表司教会議(シノドス)のための日本の教会の回答書」,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22.8.15), https://www.cbj.catholic.jp/wp-content/uploads/2022/08/Synodus16_jpn.pdf (접속일:2023.10.31), 1.

홋카이도를 관할하는 삿포로 교구라 할 수 있다.¹⁶⁾ 섬이라는 자연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다카마쓰 교구가 오사카 대교구에 통합되면서, 삿포로 교구 역시 현재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리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삿포로 교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가톨릭교회의 현주소를 위기와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제 구성원들이 교회의 변화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정착에서 정체, 위기로: 삿포로 교구의 사례

삿포로 교구의 관할 지역인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도쿄 대교구(7,351km)의 10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83,424km). 2020년 기준 홋카이도 인구는 약 522만 명으로 전국 47개 행정구역 가운데 8위에 해당하지만, 광활한 토지면적으로 인해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¹⁷⁾

홋카이도 지역 가톨릭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도 막부의 박해를 피해 바다를 건너 마쓰마에번¹⁸⁾에 당도한 외국인 선교사와 일부 일본인 신도들에 의해 은밀하게 포교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그러나 막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마쓰마에번에서도 기독교 탄압이 본격화됐고, 1639년에는 106명의 ‘에조키리시탄’¹⁹⁾이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북방개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세기까지 가톨릭은 홋카이도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²⁰⁾

1869년 메이지 유신과 함께 홋카이도는 본격적인 개척의 시대를 맞이했다. 1877년 파

16) 반대로 여러 개의 섬을 하나의 교구가 관할하는 사례도 있다. 나하 교구가 관할하는 오키나와는 16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지역으로 일본의 4대 본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에는 속하지 않는다.

17) 「令和2年国勢調査 人口等基本集計結果」, 『総務省統計局』, (2021.11.30), 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 (접속일:2023.10.31), 7.

18) 현재의 홋카이도 남단에 해당한다.

19) 에조는 홋카이도의 옛 지명이다.

20) 村井 早苗, 『キリシタン禁制の地域的展開』, (東京:岩田書院, 2007); 「えぞキリシタン殉教370周年記念ミサと資料展」, 『札幌教区ニュース』, 第12号(2009.8.21.), 5; 「藩政時代の松前」, 『松前町』, https://www.town.matsumae.hokkaido.jp/hotnews/detail_sp/00000356.html (접속일:2023.10.31); 옥승만, 「무명 순교자들의 처형지, 일본 삿포로 하코다테」, 『순교자현양회보』, 214(2020.11), 4.

리 외방 선교회가 개항도시인 하코다테의 중심지에 모토마치 성당을 건립한 데 이어, 1891년에는 하코다테 교구가 설립됐다. 1915년에는 하코다테를 제외한 홋카이도 지역과 사할린 남부를 포함하는 삿포로 지목구가 탄생했고, 1929년에 삿포로 대목구, 1952년에 삿포로 교구로 차례로 승격되면서 센다이 교구²¹⁾에 속해 있던 하코다테 지구를 포함한 홋카이도 전역이 삿포로 교구의 관할 지역이 됐다.²²⁾

홋카이도 교회사의 특징으로는 파리 외방 선교회나 프란치스코회 등, 다수의 수도회가 성당 설립과 사목 활동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할 지역과 체제 정립, 교구 사제 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교구가 수도회에 이러한 역할을 위탁해온 것이다. 삿포로 교구가 설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지구에서는 수도회에 의한 위탁 사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가톨릭 중앙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삿포로 교구 소속 평신도는 14,958명으로 당시 16개 교구 중 10위, 즉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²³⁾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도 비율은 약 0.3%로 일본 전체 신도 비율과 유사했다. 본 연구에서 일본 가톨릭교회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삿포로 교구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²⁴⁾ 문제는 관할 지역인 홋카이도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각해지면서 교세 또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가톨릭 중앙협의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가톨릭교회 현세’를 통해 2000년 이후 교구의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다.²⁵⁾

2.1. 성직자 감소와 고령화

그림 1은 삿포로 교구의 성직자 현황을 보여준다. 2000년부터 22년간 전체 성직자의 약 37%가 감소했고 대체로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다. 사제는 2000년 83명에서 2022년 48명으로 급감했는데, 여기에는 은퇴하거나 질병 등으로 사목 활동을 쉬고 있는 사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제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기

21) 1936년에 하코다테 교구에서 센다이 교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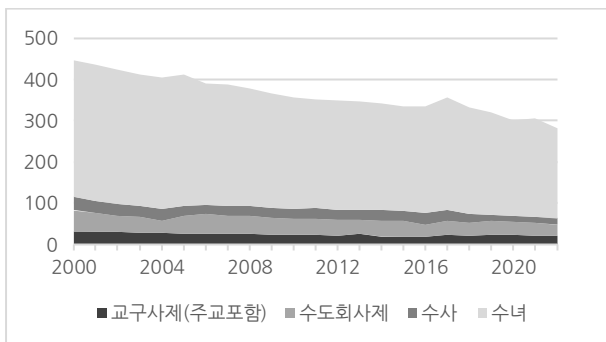
22) 小野 忠亮, 『北日本カトリック教会史：人物/教会/遺跡』, (東京：中央出版社, 1970).

23) 11위인 센다이 교구는 9,190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24) 「カトリック教会現勢」,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https://www.cbcj.catholic.jp/japan/statistics/> (접속일: 2023.10.31).

25) Ibid.

간에 본당과 사제의 숫자가 역전되면서 필연적으로 사제 한 명이 여러 본당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림 1) 샤프로 교구 성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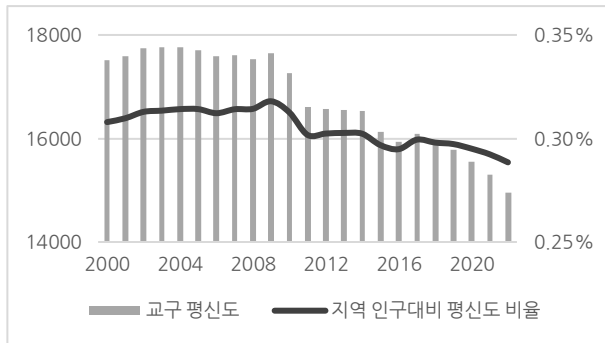
수녀는 2000년 339명에서 2022년 219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다수의 수도원이 폐쇄, 통합됐으며²⁶⁾ 수도회가 설립한 각종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수사는 2000년 32명에서 2022년 16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0년 이후 남자 수도원이 통폐합된 사례는 없으나, 수사 및 수도회 사제의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여자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성직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성소 부족에 있다. 23년간 샤프로 교구에서는 단 6명의 신학생이 사제품을 받았다. 또, 수도회 입회허가를 받은 수련자는 2005년에 15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2.2. 신도 감소 및 냉담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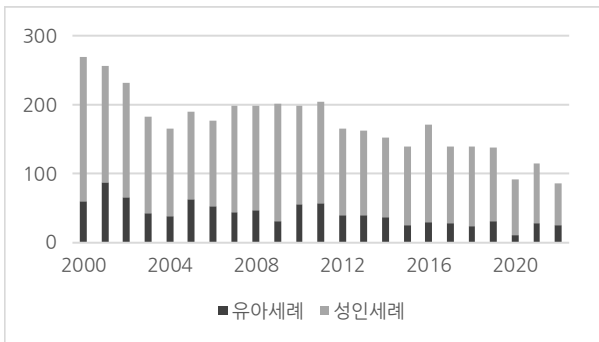
그림 2는 샤프로 교구의 신도 현황을 나타낸다. 소속 신도는 2000년 17,510명에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2011년 16,000명대에 돌입한 이래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홋카이도 전체 인구와 비교해봐도 2010년대부터 신도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1999년 27개—2022년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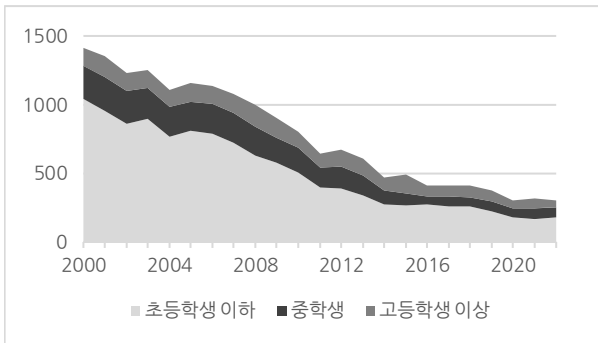
(그림 2) 샛포로 교구 신도 현황

신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다는 것이다. 신도의 유입, 즉 가톨릭 입교 현황은 세례 건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그림 3에서 나타나듯 2000년 이후 세례는 1/3 수준으로 격감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인세례는 2000년 210건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09건에 그쳤다. 유아세례의 경우, 연간 100건을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으며 2012년 이후로는 더욱 줄어들어 40건을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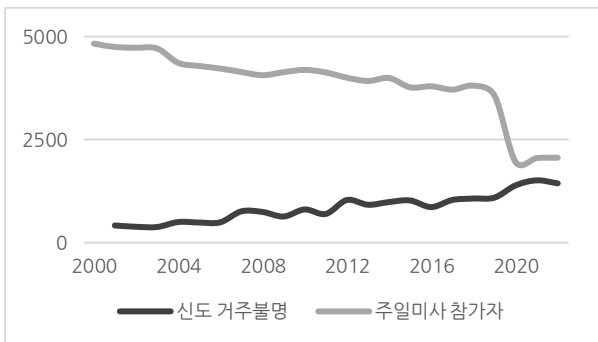
(그림 3) 세례 집전 현황

반면 유출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먼저 성당에서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주일학교 참가자는 2000년 1,400명대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300명대에 머물고 있다(그림 4). 특히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는 1,039명에서 17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림 4) 주일학교 참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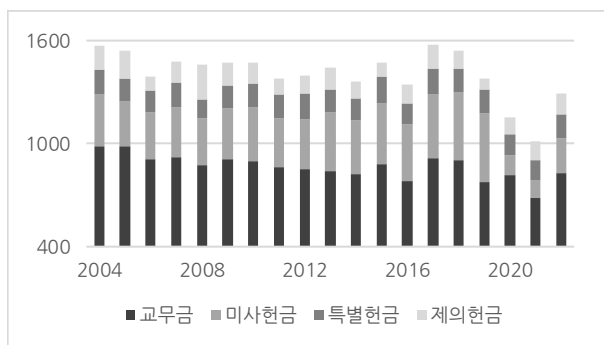
냉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5는 주일미사 참가자²⁷⁾와 거주 불명 신도²⁸⁾ 현황을 나타낸다. 주일미사 참가자는 200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에 3,500명대를 기록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거주 불명 신도는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년간 교회에 발길을 끊은 신도가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이탈이 그만큼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주일미사 참가자 및 거주 불명자 현황

- 27) 각 본당에서 부활, 성탄 미사를 제외한 미사에 참가한 인원의 연간 평균치를 합한 것으로, 본당에 따라 인원 집계 방식이 달라 실제 참가자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증감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라 생각된다.
- 28) 일정 기간 이상 교회와 연락이 닿지 않은 신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가 10년 동안 계속되면 본당 교적에서 제외된다. 2000년에는 일본 가톨릭 중앙협의회가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도의 감소와 고령화는 현금 감소로 이어져 본당 재정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여기에서는 주교좌성당인 북1조 성당의 현금 수입 데이터를 살펴보기로 한다. 삿포로 시내 중심지에 자리한 북1조 성당은 유리한 입지 조건에 주교좌성당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교구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신도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금 수입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특히 본당 소속 신도가 납부하는 교무금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이미 20% 이상 줄어들었다. 교적에 등록된 신도의 숫자는 지난 20년간 100명 이상 증가했지만, 은퇴 이후 납부금액을 조정한 고령 신도나 성당에 나오지 않는 냉담자가 늘어나면서 교무금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6) 주교좌성당 (북1조 성당) 현금 수입 현황²⁹⁾

또, 이 기간에는 신도와 사제의 감소, 재정 악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본당이 차례로 통폐합됐다. 삿포로 교구의 정식 본당³⁰⁾은 2000년에 63개에서 2022년 56개로 감소했다. 이마저도 상당수는 교적에 등록된 신도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본당으로³¹⁾ 향후 냉담 및 전출로 인한 신도 감소 현상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본당이 존폐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29) 단위 만엔.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 미사헌금은 특별미사 외 헌금, 특별헌금은 부활절 등 특별미사 헌금, 제한헌금은 혼인성사 및 장례미사 헌금을 의미한다. カトリック北1条教会運営委員会, 『教会会計収支予算案』, 『カトリック北1条教会総会』, 200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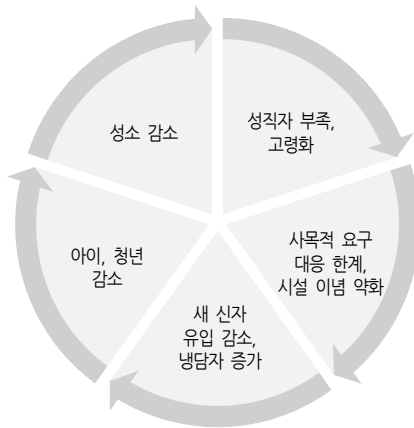
30) 선교본당(巡回教会)과 공소(集会所)는 포함되지 않는다.

31) 2000년 18개, 2022년 19개

2.3. 코로나19

교세의 약화가 뚜렷해지던 가운데,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삿포로 교구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2월 25일 교구는 가쓰야 다이치(勝谷 太治) 주교 명의의 공문을 통해 모든 공개 미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³²⁾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와 정부 방침에 따라 미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 활동은 재개, 중단되기를 반복했고, 성수나 성가와 같은 교회의 전통도 금지되면서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0년 이후 신도 숫자는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여 2022년에는 처음으로 14,000명대에 들어섰다. 세례 역시 줄어들어 2020년과 2022년에는 100건 이하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1,500명이 넘는 신도가 한 번도 성당에 나오지 않거나 소식이 닿지 않았다. 미사가 중단 또는 제한되면서 주일미사 참가자는 2,500명을 밑돌았고 자연히 미사헌금도 줄어들어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2023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신형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 감염증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삿포로 교구 역시 2023년 3월 1일부로 관련 지침을 모두 철회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본당은 여전히 감염 위험성을 이유로 활동 및 행사를 축소하거나 자숙하고 있어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 7) 교구의 악순환 고리

32) 勝谷 太治,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防止に関するミサ対応について」, 『カトリック札幌司教区』, <https://csd.or.jp/> (접속일:2023.10.31).

그림 7은 21세기 샷포로 교구가 직면한 위기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성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개인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 성직자가 이전과 같이 사목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성직자의 개입이 줄어들자 가톨릭 시설의 종교이념 또한 약해졌다. 이로 인해 새 신도가 유입될 유인이 줄어들었고, 기존 신도들도 점차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냉담자가 증가했다. 특히 교회에서 아이와 청년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신도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청년 신도의 급감은 자연스럽게 성소 감소로 연결됐고 이는 다시 성직자 부족 사태의 심화로 이어졌다.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3. 대담한 재편 논의와 실천

3.1. 사목 체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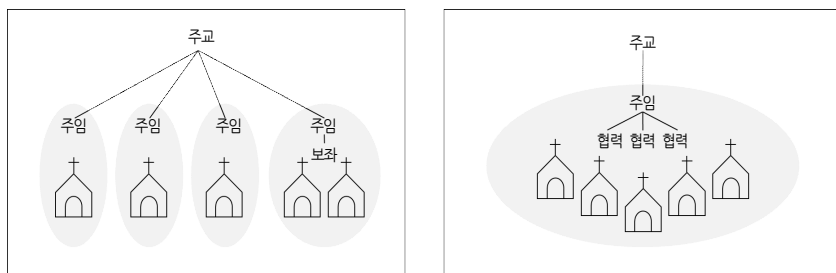
샷포로 교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방위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사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목 체제 개편에 돌입했다. 본당과 사제의 숫자가 역전되면서 샷포로 교구에서는 한 명의 사제가 여러 본당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병환이나 귀국, 사망 등으로 인해 사제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 해당 사제가 담당하던 모든 본당에 사목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구는 2018년에 샷포로 지구 내 일부 본당에 책임 사제(moderator)를 시범적으로 임명한 데 이어,³³⁾ 2023년에는 지구 전체에 블록을 편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동 사목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공동 사목 체제는 지구나 블록 단위로 여러 명의 사제를 배치하고 주임 또는 책임 사제에게 해당 단위의 선교 사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회법 제517조 1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³⁴⁾ 그림 8은 사목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왼쪽은 본당 단위로 주임, 보좌신부를 임명하는 종래의 방식을, 오른쪽은 여러 본당으로 구성

33) 「モデラートル・共同司祭について」, 『札幌教区ニュース』, 第27号(2018.5.25), 2.

34) 제517조 ①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한 본당 사목구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이 여러 명의 사제들에게 연대 책임으로 맡겨질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그들 중의 한 명이 사목 수행의 지휘자가 되어 합동 행위를 통솔하고 주교 앞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회법」,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접속일:2023.10.31).

된 블록에 한 명의 주임사제와 복수의 협력 사제, 또는 한 명의 책임 사제와 복수의 주임, 협력 사제를 임명하는 공동 사목 방식을 나타낸다. 가쓰야 주교는 2023년 인사이동 발표문을 통해 “지구 및 블록 단위로 공동의 선교 사목 비전을 갖고, 서로 보완해가며 선교 사목을 대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희망”한다며 체제 개편 취지를 밝혔다.³⁵⁾



(그림 8) 삿포르 교구의 사목 체제 변경 전후 비교

2022년에는 지구 간 사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목 인원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수도회가 사목을 맡아왔던 지구에서 고령화, 귀국 등의 이유로 사제가 부족해지자, 삿포르 지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던 교구 사제를 타 지구로 이동시킨 것이다. 후술하겠으나 이 결정은 신도의 역할 증대³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타 교구로부터의 사제 파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 대교구로부터 사제가 파견됐고, 한국에서도 서울, 의정부, 마산 등 여러 교구로부터 파견된 해외 선교 사제가 사목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수도회 역시 해외 관구 출신의 사제를 새로 맞이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기능실습생 제도³⁷⁾를 통해 홋카이도에 체류하는 동남아시아 기능실습생이 늘어나자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필리핀인, 베트남인 사제를 파견했는데, 이들 사제³⁸⁾가 베트남어 미사를 정기적으로 집전한 것을 계기로 수백 명 규모의 베트남

35) 勝谷 太治, 「司祭の人事異動(2023年度)」, 『カトリック札幌司教区』, (2023.3.3), <https://csd.or.jp/> (접속일: 2023.10.31).

36) 주교좌성당을 포함한 삿포르 지구 대부분의 본당에서 공소예절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37) 일본의 기술, 지식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일본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기능에 숙달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外国人技能実習制度とは」, 『公益財団法人 国際人材協力機構』, <https://www.jitco.or.jp/ja/regulation/> (접속일: 2023.10.31).

38) 사제는 청년 네트워크의 조직, 운영 면에서도 도움을 주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본당 및 교구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내외국인 신도의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인 가톨릭 청년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성소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종신 부제 제도의 도입, 외국인 성소자의 양성 과 같은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종신 부제 제도란 미혼 또는 기혼 남성에게 일생 부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³⁹⁾ 삿포르 교구에서는 2019년 4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에 처음으로 종신 부제를 임명했다.⁴⁰⁾ 또, 최근 수년간 베트남 출신 교구 신학생과 수도회 입회자가 차례로 탄생하면서 만성적인 성소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삿포르 교구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3.2. 장기적 교구 재편 논의

최근 삿포르 교구는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교구 재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22년 가쓰야 주교는 교구 사제와 평신도로 구성된 교구 재편 자문위원회에 (1) 사제 감소와 재정 악화 등 교구의 현실을 고려하여 (2) 대담한 발상을 담은 (3) 5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교구 재편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2023년 3월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삿포르 지구와 도마코마이 지구를 통합하는 지구 재편안과 각 지구에 7~8개의 거점본당을 두고 그 외의 본당은 폐쇄하거나 선교본당 및 공소로 전환하는 본당 재편안이 포함됐다.⁴¹⁾

교구 차원의 재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일부 지구나 본당 단위에서는 통합, 재편 논의가 이미 상당 수준 이루어져 실천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 2015년 스미노에 성당과 도미오카 성당을 오타루 성당으로 통합하면서 두 성당의 건물과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급격한 신도 감소 및 고령화, 그에 따른 본당 재정 악화로 인해 1본당 2건물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신도 회의를 통해 스미노에 성당을 폐쇄하고 도미오카 성당에 본당 기능을 집약하기로 결정했다.
- 기타미 지구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 유지, 보수에 드는 부담이 커지자 전체 4개 본당의 재정을 통합하여 각 본당에서 거둔 헌금 등의 수입을 함께 관리, 지출하고 있다.

39) 박종인, 「부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톨릭뉴스』, (2016.5.19),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0> (접속일:2023.10.31.).

40) 「終身助祭制度を導入」, 『札幌教区ニュース』, 第29号(2019.7.31.), 3; 「桶田終身助祭叙階式行われる」, 『札幌教区ニュース』, 第33号(2021.4.17), 1.

41) 札幌教区小教区 再編諮問委員会, 「札幌地区の将来に向けた検討について」, 『カトリック札幌司教区』, (2023.4.27) <https://csd.or.jp/> (접속일:2023.10.31.).

- 아사히카와 지구에서는 지구 재편 및 본당 통합에 관한 신도들의 견해를 묻는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다수의 신도가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편 추진을 유보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20세기 초부터 홋카이도 각지에 진출한 수도회는 당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던 교육, 복지사업 등을 통해 복음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성소 감소와 수도자의 고령화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수도원을 포함한 각종 시설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 성조지의 프란치스코 수녀회는 홋카이도 전역과 도쿄를 포함해 15개의 수도원을 설립했으나, 최근 20년 사이에 대부분의 수도원이 폐쇄되면서 수도자들은 현재 삿포로 시내와 근교에 있는 3개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 성조지의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설립한 아사히카와, 기타미의 후지 여자중고등학교는 2003년에 중학부가 폐지되면서 후지 여자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에도 운영 위기가 계속되자 2019년부터는 교구 산하 학교법인인 운영을 이관받아 남녀공학 후지 고등학교로 탈바꿈시켰다.
- 2023년 성조지의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설립한 후지학원과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설립한 덴시학원의 학교법인 합병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발표됐다.⁴²⁾

3.3. 시노달리타스의 실천 요구

2021년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의 개막과 함께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가 가톨릭교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삿포로 교구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교구 재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쓰야 주교는 2023년 10월에 개최된 삿포로 지구 합동 미사에서 신도의 멘탈리티 변화를 강조하면서 사제나 주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호소에 부응하듯, 신도들은 사제에게 집중됐던 역할을 함께 부담하기 시작했다. 공소예절(集会祭儀)이 대표적인 예다. 교구는 모든 본당에서 주일미사를 거행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정식 본당에서도 사제 부재 시에 평신도가 주례와 성체분배를 맡아 공소예절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소예절은 본당 간 거리가 멀어 미사 거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타미, 구시로 지구 등에서 먼저 시행되다가 2022년에 지구별 사목 인원이

42) 学校法人藤学園・学校法人天使学園, 「プレスリリース」, 『学校法人藤学園』, (2023.3.31) <https://www.fujijoshi.ac.jp/uploads/files/hojin/news/past/pressrelease20230331.pdf>(접속일:2023.10.31).

재조정되면서 현재는 교구 내 대부분의 본당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정과 같이 주임사제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본당 운영이나 제단체, 행사 등, 대부분의 본당 활동은 신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수년간 축소, 중단됐던 활동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면 신도들의 역할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구 소속 청년 신자들의 모임인 전도청년회(全道靑年會) 역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류 및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다양한 SNS 채널을 개설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온라인 기도 모임 등을 기획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오프라인상에서도 스포츠대회, 바비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하여 젊은 신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인 신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많은 본당이 영어나 베트남어로 된 주일미사 팸플릿⁴³⁾을 비치하고 있고, 주일미사를 다국어, 즉 일본어와 외국어를 혼합하여 거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교좌 성당인 북1조 성당은 외국인 공동체를 위한 영어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소속 신도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사 참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22년부터 교구가 주최한 베트남인 청년대회에는 100여 명이 넘는 내외국인 신도가 참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실습생의 공동체 적응을 돕기 위해 일본어 교육, 노동문제 상담, 의료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본당의 사례가 지역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가톨릭교회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⁴⁴⁾

수도회도 신앙 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걷는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 수도원에 서 일반 신도를 대상으로 성서 모임, 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수도자가 일선 본당을 찾아 예비자 및 첫영성체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수도 성소 계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수도회도 늘고 있다.

한편, 성학대 파문과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향에 따라 샤프로 교구에서는 2017년부터 사순 제2주간 금요일을 ‘성학대 피해자를 위한 기도와 속죄의 날’로 정하고

43) 오리엔스 종교연구소가 매주 발행하는 소책자로, 말씀 전례의 내용과 해설이 적혀 있다.

44) 「【各地の取り組み】Vol.1:札幌教区 手稲(ていね) 教会」, 『日本カトリック難民移住移動者委員会 (J-CaRM)』, (2020.7.3), <https://www.jcarm.com/2020/07/03/1336/>(접속일:2023.10.31); 「【韓ジョン守さん】道内のベトナム人技能実習生を支援する韓国人司祭」, 『北海道新聞』, (2019.11.14), <https://www.hokkaido-np.co.jp/article/364574/>(접속일:2023.10.31); 「外国人実習生に第3の居場所を 函館の教会「疲れた心治す場所」」, 『北海道新聞』, (2023.9.19), <https://www.hokkaido-np.co.jp/article/909736/> (접속일:2023.10.31).

특별미사를 거행해왔다. 2019년에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성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교구는 즉각 피해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성직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시행했다. 2023년에는 신도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회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태와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교구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삿포로 교구는 사목, 본당, 위계질서 등 기존 체제를 뒤엎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련의 노력은 교세 확장을 목표로 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찾아올 더 큰 위기에 대비한 일종의 연착륙 시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구성원들은 어떻게 인식, 평가하고 있을까?

4. 급격한 변화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공동체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그룹보다는 개별 인터뷰가 응답자의 솔직한 견해를 듣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를 실시했다. 인터뷰 대상이 된 삿포로 교구 구성원 23명(성직자 10명, 신도 13명)은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했다. 2건의 온라인 인터뷰를 제외하고 모든 인터뷰는 대면 방식으로 2023년 하반기에 진행됐다.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대부분 응답자는 삿포로 지구의 성당 또는 수도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홋카이도 지역 인구 및 인프라가 이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⁴⁵⁾ 교구 전체 평신도의 60% 이상이 삿포로 지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⁶⁾ 그 밖의 지구와 관련해서는 아사히카와, 구시로, 기타미, 도마코마이 지구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과거에 교적을 두었던 참가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데이터를 정리한

45) 삿포로 지구 관할 지역인 이시카리, 시리베시, 소라치 지역의 인구는 2022년 1월 기준 2,856,481명으로 홋카이도 전체 인구의 이 일대에 55%가 거주하고 있다. 総務省,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人口動態及び世帯数調査」,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2022.8.9), https://www.e-stat.jp/stat-search/files?stat_infid=000032224636 (접속일:2023.10.31).

46) 2022년 기준 삿포로 지구 19개 본당에 9,000명의 신도가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지구의 교구 분담금 비율은 67%, 세례 건수는 72%에 달한다. 「2022年カトリック札幌司教区教勢報告書」, 『札幌教区ニュース』, 第41号(2023.4), 4-5.

것으로, 인터뷰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익명 처리했다.

4.1. 교회의 변화와 위기의식

4.1.1. 성직자 감소

신도를 포함하여 모든 참가자는 성직자 감소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제들의 업무 과중과 체력적 부담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사제들은 2~9개 본당의 사목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고,⁴⁷⁾ 교구 업무도 겸임하고 있었다. 최근 수년간 담당 본당이 늘어나면서 미사를 집전하기에 급급할 뿐, 본당 운영이나 활동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답변이었다. 사제들은 사목 활동에 있어 물리적인 이동 거리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 4개 본당을 맡게 되면서부터 매주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가는 건 괜찮지만 겨울이면 올 때는 밤이 되어버리지 않나. 여기에 본당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미사 시간을 조정하고 공소예절을 실시하자고 했다.
- 지금 맡은 본당은 50~150km씩 떨어져 있다. 매주 그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도들은 미사 시간이 변경되거나 고해성사를 보기 어려워져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 응답자는 사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든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또, 사제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잦은 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 신부님들이 사목 활동을 하다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바빠서 공부할 기회도 없는 현실, 이걸 신부님과 신도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 6년간 주임신부님이 3번 바뀌었다. ... 신부님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시각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좋다.

수도회 역시 수도자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생활의 많은 부분이 간호 보조나 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인적, 경제적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비교적 젊은 수도자들의 경우, 수도원 내부 업무에

47) 공동 사목을 포함한다.

더하여 운영시설 및 교구, 본당에서의 외부 활동까지 도맡고 있었다.

- 수도원 안에 여러 업무가 있지 않다. 예전에는 모두가 할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극소수만 할 수 있다. 거기에 나이 많은 수녀님은 간호나 생활 보조도 필요하고 적은 인원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복음 선교와 지역복지를 위해 수도회가 설립한 시설은 대부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임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부 수도자는 설립이념의 약화나 세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교사 중에 신자가 줄어들면서 학교 분위기나 교육이 세속화되는 것을 느낀다. 한번은 교사가 내 앞에서 종교적인 내용을 농담거리로 이야기해서 항의한 적이 있었다.

성직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이 성소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신도, 특히 아이와 청년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답했다.

- 보육원 아이들은 (사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커서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곳에서 소명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다.
- 청년들 앞에서는 바쁘다는 이야기를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제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다니면 사제 소명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성직자 파견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언급됐다. 먼저 교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수도회에서 외국인을 입회시키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 등 제도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례도 있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교구와 수도회가 외국인 성직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목 및 수도생활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한 맞춤형 어학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 본당 숫자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사제를 파견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교구가 그만큼의 임금을 줄 수가 없다.

외국인 성직자들은 일본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선교지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던 탓에 처음에는 일본 파견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신도들은 신앙에 대한 자세나 교회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며 외국인 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사제의 낮은 사목 방식에 신도들이 향의나 불만을 토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직자의 파견에 있어 제도적, 언어적 장벽 외에도 상호 이해와 적응이 중대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첫 서원 전에 선교지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에 많이 가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일본은 인기가 없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가겠다고 답을 한 후에 선교사가 일본이라는 것을 알았다.
- 미사 중에 신도들과 악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사 중에 춤도 추는데 일본은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지만 제약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4.1.2. 신도 감소 및 냉담자 증가

응답자 대부분은 본당에 나오는 신도가 줄어든 것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신도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본당에 따라서는 주일미사 참가자가 10명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본당에서 아이나 청년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데에는 부모나 가정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모가 교회와 멀어지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 본당의 위치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가족 단위 신자들이 많이 찾는 주택가 본당에서는 주일학교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 반해, 그와 비슷한 규모의 도심 중심지 본당의 경우, 이미 수십년 전에 유아당을 폐쇄했다고 한다.

- 요즘은 아이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는 인식조차 많이 약해졌다.
- 3대, 4대가 가톨릭 신자인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세례만 받고 성당에 안 오는 경우가 많다.
... 가정에서 부모나 조부모가 (신앙에 대해) 잘 가르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를 느낀다.

학업과 업무에 시달리는 청년 신도들은 성당에 갈 체력적, 심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토

로했다. 또, 성당에 가더라도 미사 외의 활동은 부모, 조부모 세대의 신도들이 많아 진입 장벽을 느낀다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지구모임이나 운영회의 등, 본당 운영에 있어서 핵심 주체가 되는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참여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 예전부터 ○○모임에 관심이 있었지만, 너무 어르신들만 계셔서 참가할 엄두가 안 났다. (모임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이라고 이것저것 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서.
- 지구 모임에 참가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항상 모이는 분들이 모이는 느낌이다.

고령 신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당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또, 교구 특성상 본당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 본당 내부에서 인간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교적을 옮기기보다는 냉담을 택하기 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상당수의 응답자는 종교를 터부시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 분위기를 의식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종교를 감추거나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아베 암살사건 당시) 기독교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다. 통일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도 하고 나 자신도 그런 분위기가 없는 동네에서 자랐다. 어릴 때는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웠다.

예비자 교리교육에 관해서 통일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10년 이내에 세례를 받은 신도들은 저마다 다른 기간,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예비자 교육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본당에서는 성서 모임으로 교리교육을 대체한 사례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예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본당에 예비자가 쏠리는 현상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 예전에는 예비자가 오면 집 주소를 듣고 관할 본당으로 가라고 안내를 했다. 요즘은 집 근처 본당에 교리반이 없어서 ○○성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 ... 다른 본당과 합동 교육을 하지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다.

4.1.3. 공소예절

본당에 따라 도입 시거나 시행 횟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인터뷰에 참여한 신도 대부분은 소속 본당에서 공소예절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입 당시에는 놀라움과 위기감을 느꼈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제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공소예절을 실시하면 참가자가 줄어든다는 다수의 응답에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공소예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신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 공소예절을 하면 (참가자가) 2할 정도 줄어든다. 쉬어가는 날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미사와 공소예절의 차이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회중이 주례자를 사제로 혼동하거나 주례자 본인이 사제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구체적인 예식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아 주례자의 재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 공소예절에 관해서 설명을 들은 기억은 없다. 본당에 가보니 신부님이 안 계셔서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 싶었다.

4.1.4. 코로나19

2023년 3월부터 인원 제한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전면 해제됐으나, 대부분의 본당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고 한다. 많은 신도가 교회를 떠난 가운데, 실제로 한 응답자는 매주 미사에 가던 습관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냉담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또, 팬데믹 시기에 주임사제가 새로 부임하거나 본당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른 성당에 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 코로나 때 건강 문제로 성당에 안 오던 신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 미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에 돌아가는 문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끝나고 다 같이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었는데 지금은 서로 벽이 생긴 느낌이다.

한편, 많은 응답자는 코로나 시대에 나름의 순기능을 발견했다고 한다. 교구의 지침에 따라 미사가 중단됐던 시기에도 수도원은 예외적으로 미사 집전이 허용됐는데, 이를 알게 된 신도들이 수도원 미사에 참여하면서 뜻밖의 교류가 생겨난 사례가 있었다. 또, 사회적

으로 온택트가 대중화되면서 신앙생활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신도들은 온라인 미사 생중계나 기도 모임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고, 이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신도들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 또래 신도를 알게 됐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사제를 포함한 복수의 응답자는 온택트 방식이 고령화와 이동면적 등 교구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4.2. 변혁을 가로막는 경직된 교회 문화

4.2.1. 성직자 중심주의

응답자들은 뿌리 깊은 성직자 중심주의가 교구 재편 시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특히 이러한 전통에 타성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신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교구가 시노달리타스를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도들은 여전히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이다. 한 신도는 순명, 순응이라는 가톨릭의 전통에 일본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와 맞물려 교구의 지리적 폐쇄성이 더해지면서 성직자 중심주의가 더욱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 (교구 재편은) 주교님 결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 사제에게 권리가 부여되다 보니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다. 예전에는 신도가 사제에게 갑질(パワーハラスメント)을 당해 교적을 옮긴 일도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사제들은 과거 사제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인정하면서도 더는 사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관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를 포함해 대다수 응답자는 본당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신도들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신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신도의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은 경계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 사제가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른바 신도체질이다. 예전부터 그래왔기도 하고
- 신도 스스로 무언가를 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회의 때 회의자료나 볼펜을 세팅하지 않나. 그럴 때 신도는 “볼펜은 어느 방향으로 들까요?”하고 신부님께 묻는다. 한 마

디오 아무런 결정을 못 한다.

-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건전하지 못한 일인지 사제와 신도 모두 깨달아야 한다.
- 예를 들어 (공소예절) 주례자가 입당할 때 어디에서 나오는지 대강 감으로 정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사제와 신도가 같이 공유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4.2.2. 좁은 공동체 의식

신도가 위만 바라본다는 표현에는 옆을 보지 못한다는 함의도 내포되어 있다. 인터뷰를 통해 교구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이 매우 좁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건물로서의 본당, 또는 그 안에 있는 일부 구성원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교구 재편안에 대한 신도들의 태도에서 드러났는데, 중소규모 본당과는 달리 대규모 본당의 신도들은 본당 통폐합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편안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 몇몇 응답자들은 소규모 본당과의 재정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다른 성당과 통합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성당(소속 본당)이 없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 신부님이 (교구 재편안 설명하면서) 본당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다. 모두 그 말에 안심했는지 더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 본당 수선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 놓은 특별기금을 교구가 가져간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본당을 위해서 모아둔 돈이니깐.

신도 대부분은 타 본당이나 지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며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교구 재편과 관련하여 이미 교구 내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에도 응답자의 상당수는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때 본당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적도 있었으나 본격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여러 본당의 신도들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모임에서도 소속 본당을 뛰어넘은 협력은 보기 힘들다고 한다.

- 정보 교환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때그때 바뀌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주임신부님이 같은 본당끼리 정보를 교환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 다른 본당에서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연히 만나면 물어보는 수 밖에 없다.

- 여러 본당이 참가하는 봉사모임이 있는데 매주 당번 본당을 정한다. 다 같이 하면 될 텐데 꼭 본당 단위로 활동한다.

몇몇 사제와 신도들은 본당 내부에서도 벽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다른 세대나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언급했다. 반면, 당사자가 아닌 응답자들은 이를 부정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에서도 공동체 내부의 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교구 재편에 대해) 어르신들에게 의견 내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죽고 없을 텐데”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할 말이 없다.
- 운영위원장, 공소예절 주례자, 성체분배자 모두 남성이 많고 있다. 남성들의 권위주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바뀌야 한다.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 엄청난 벽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총회에서 외국인 신도가 발언을 못 하게 막은 적도 있었다. ... 세례식도 외국인은 따로 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낀다.
- (외국인 신도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일본인 신도를 거쳐야 한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사제단이나 수도회 내부에도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교회의 사회공헌에 신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 외국인 수녀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수녀님이 이름이 아닌 국적으로 부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 사제들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형제가 아니라 직장 동료 같다.
- 바자 수익 전액을 외부 단체에 기부하게 되면서부터 몇몇 본당에서 신도들이 의욕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사회나 자선활동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 가톨릭 신자임에도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부족해 보인다.

4.3. 교구의 미래를 위한 제안

4.3.1. 교회의 변화에 맞춘 제도 재정비

응답자들은 교회 혁신을 위한 해결책으로 각종 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현재 논의 중인 교구 재편과 관련하여 단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종래의 방식

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재정전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복수의 응답자들은 본당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구 재편 과정에서 본당 간의 재정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 적용 범위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예산 논의를 하면 집행, 지출만 놓고 싸우는데 의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비전을 그려야 한다.
-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신부님들도 회계를 잘 모르다 보니 전문 지식이 있는 신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다.

응답자 대부분은 개별 본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구나 블록 단위로 함께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했다.

-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활동할 세대가 부족하기도 하고 ... 이웃 본당의 교류가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다.
- 주교관 같은 곳에서 지구 단위로 (예비자 교라를) 함께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신도가 사제의 역할을 잃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규약이나 세칙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회법이나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신도가 임의로 결정할 경우, 본당 내부 또는 본당 간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응답자는 담당자 변경이나 세대교체로 인해 본당 운영이나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 사제가 하는 업무 대부분을 신도가 흡수하자고 논의 중인데, 이러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더더욱 규약을 정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
- (본당 활동은) 예전부터 도제식으로 진행됐다.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이 일단 시켜보고 틀리면 지적한다. ... 적어도 우리 세대부터는 이런 걸 없애려고 하고 있다.

성당을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당 홈페이지와 SNS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 사제는 사목 활동에 온택트 기술을 적용한다면 공동 사목 체제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응답자 역시 본당에 나오지 못하는 고령 신도들을 위해 온라인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 〇〇성당(소속 본당)은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다. 예비자가 많은 것도 이 덕분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리반 안내문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신도의 경우, 세례 증명이 번거롭거나 귀국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교적을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교구 내에 외국인 신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본당이 신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언어 장벽이 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수년간 미사에 참석했지만 교적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일본 내에서도 외국인 신도가 많은 본당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다.
- 교회가 외국인 신도들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비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걱정스럽다. ... 전입을 하거나 따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본인들도 본당에 소속감이 생기지 않겠다.
- 처음 삿포로에 왔을 때만 해도 일본어 팸플릿밖에 없었고 미사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지금은 어느 본당이나 베트남어 팸플릿이 비치된 걸 보면서 교회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느낀다.
- 베트남 신부님과 신도들이 일본 전국에 있는 성당을 표시해주는 앱을 만들었다. ... 다른 언어로도 이런 시스템이 생겨나면 좋겠다.

4.3.2. 문턱을 낮춘 공동체, 즐거운 교회

일본 가톨릭교회는 2022년 11월부터 형제를 형제자매로, 사제를 당신으로 개정한 새 미사 통상문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통상문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더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많은 응답자는 사제의 역할을 함께 짊어지려면 더 많은 신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구나 본당 활동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본당에서 1인 1억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자고 이야기한다.

인터뷰에 응한 젊은 신도들은 본당 모임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요청이 있으면 일손을 보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회는 냉담의 갈림길에 선 청년들에게 마지막 신앙의 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위원회나 모임에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 괜찮다. 앞으로도 그렇게 도울 의향이 있고
- 성당에 가지 않으면서 청년회 모임에는 나오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남녀의 장벽과 관련하여 전례 봉사가 자주 언급됐다. 여성, 특히 성인 여성이 복사나 주례자를 맡는 것에 대해 대부분 응답자는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으나, 일부 본당에서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더 많은 여성이 제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제와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성 복사) 예전부터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서기 시작했다. ○○성당처럼 논란이 된 적도 없었다.
- 주례자로 임명됐을 때, 특히 어머니가 “여성에게도 이런 큰 축복이 있다니”라며 기뻐하셨다.

외국인 신도들과의 화합과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신도들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공동체의 확대에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 실습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성당에 오면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거든. ... 언어가 안 통해도 (외국인 신도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
- 어떤 어르신이 베트남어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말하냐고 물어보길래 가르쳐줬더니 다 같이 연습을 하더라. 지금은 미사 때 베트남어로 독서를 하면 회중도 베트남어로 답한다.
- 원래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지만 다른 실습생을 따라왔다가 세례까지 받은 친구가 있었다. 다른 본당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몇 명 있었다고 들었다.

수도회 역시 신도들의 신앙 양성을 돕는 방식으로 수도원의 울타리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일부 응답자들은 신앙과 영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수도회가 진행하는 피정, 성서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성소 식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도자들이 수도회의 벽을 넘어 가톨릭 공동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본당 및 교구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 ○○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는 중이다. 최근에 수도회에서 시작한 기도 모임도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 (본당 활동에) 협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수교회로서도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 신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많은 응답자는 기독교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일본에서 교회와 접점이 없는 아이들이 가톨릭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교회 이미지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육시설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저출산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복음화의 마지막 보루로서 교육시설과 설립이념을 보존할 것을 주장했다.

- 유치원이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졸업생들이 종종 나온다. 이런 부분이 큰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다.
- (가톨릭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세례를 받는 아이는 많지 않겠지만, 나중에 가톨릭 신자를 만나더라도 편견은 없지 않겠다. 또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교회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활기가 넘쳤던 과거의 본당을 회상하며 저마다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다양한 의견과 비판, 제안이 나왔지만, 공통된 결론은 그때와 같이 즐거운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일본 가톨릭교회는 어둡다. 삶과 죽음 중에서 죽음 쪽에 더 가까운 분위기다. ...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낡고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
- 이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공간이 된다면 청년들도 더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〇〇모임은 같이 식사를 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 모임에서 가톨릭에 흥미를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막상 성당에 가보니 분위기가 달라서 당황했다고 하더라. 교회가 말하는 복음 선교는 더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일본 가톨릭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을 샷포로 교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21세기 이후 샷포로 교구는 사제 및 신도의 감소와 고령화, 성소 감소, 재정 악화

라는 무한 굴레에 빠지면서 갈수록 교세가 약화됐고, 코로나19와 여러 사건사고까지 겹치면서 위기가 더욱 가속화됐다. 이에 교구는 사목 체제 및 교구 재편, 시노달리타스의 실천 요구 등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교구 성직자와 신도를 대상으로 특히 코로나 전후로 나타난 급격한 변화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직자 중심주의와 좁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경직된 교회 문화가 변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사제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신도들이 옆(공동체)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위(주교, 사제)만 바라보며 결정을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에서는 교구의 미래를 위한 비전도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먼저 최근 교구와 본당이 겪고 있는 변화에 맞춰 재정, 운영,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체제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약 정립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틀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성직자 중심주의와 좁은 공동체 의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는 퍼트남의 주장처럼,⁴⁸⁾ 먼저 신도 개개인이 ‘나 홀로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 전체를 자신의 공동체라 생각하고 협력하려 할 때, 비로소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구습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이 교구, 더 나아가 전체 교회의 미래를 위해 제시한 아이디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식이 발견됐다. 요컨대 공동체의 문턱을 낮추고 즐거운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위기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냉담자 증가와 같은 현상은 한국을 포함하여 교세가 비교적 강한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성소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⁴⁹⁾ 일본 가톨릭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은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또, 복음 선교의 관점에서도 본 연구는 경제 대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파견지로서 선호

48)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995).

49) 민경화, 「위기의 신학교 현황과 대안은」, 『가톨릭신문』, 제3331호(2023.2.19), 4.

되지 않는 일본 교회의 현실을 조명하고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사제, 수도자, 신도들은 적신호가 켜진 교구의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그저 비판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코로나 시대에는 온택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했고, 사제의 부담이 커지자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위기 해결을 위한 샛포로 교구의 대응은 이제 막 논의에 들어선 단계에 불과하지만, 신도가 이 논의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시노달리타스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한 수도자는 교회를 성당 건물이 아닌 신앙과 기도로 맺어진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샛포로 교구의 재편안은 성당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교회를 떠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가톨릭 신앙에 대한 사회의 오해나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교세 약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본당 간의 교류 확대, 운영 및 재정 공동화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 내부에 뿌리박힌 벽을 허물고, 즐겁고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간다면 샛포로 교구, 더 나아가 일본 교회에도 분명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참고문헌

- 「교회법」,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접속일:2023.10.31).
- 민경화, 「위기의 신학교 현황과 대안은」, 『가톨릭신문』, 제3331호(2023.2.19).
- 박종인, 「부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톨릭뉴스』, (2016.5.19),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0>(접속일:2023.10.31).
- 옥승만, 「무명 순교자들의 처형지, 일본 삿포로 하코다테」, 『순교자현양회보』, 214(2020.11).
- 「【各地の取り組み】Vol.1:札幌教区 手稲(ていね)教会」, 『日本カトリック難民移住移動者委員会 (J-CaRM)』, (2020.7.3), <https://www.jcarm.com/2020/07/03/1336/>(접속일:2023.10.31).
- 「【韓ジョン守さん】道内のベトナム人技能実習生を支援する韓国人司祭」, 『北海道新聞』, (2019.11.14.), <https://www.hokkaido-np.co.jp/article/364574/>(접속일:2023.10.31).
- 「10人に1人が80歳以上に 総務省人口推計」, 『NHK』, (2023.9.17),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917/k10014198601000.html> (접속일:2023.10.31).
- 「2022年カトリック札幌司教区教勢報告書」, 『札幌教区ニュース』, 第41号(2023.4).
- 「21世紀の日本の教会の展望ー司教たち大いに語るー」, 『東京教区ニュース』, 第178号(2000.1.1), <https://tokyo.catholic.jp/info/news/11281/>(접속일:2023.10.31).
- 「えぞキリシタン殉教370周年記念ミサと資料展」, 『札幌教区ニュース』, 第12号(2009.8.21).
- 「カトリック教会現勢」,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https://www.cbcj.catholic.jp/japan/statistics/> (접속일:2023.10.31).
- 「カトリック聖職者による性暴力 被害女性が提訴 国内で初」, 『Christian Today』, (2020.10.2), <https://www.christiantoday.co.jp/articles/28579/20201002/catholic-priest-sexual-abuse.htm> (접속일:2023.10.31).
- 「モデラトル・共同司祭について」, 『札幌教区ニュース』, 第27号(2018.5.25).
- 「去年の出生率1.26で過去最低 7年連続で前年を下回る」, 『NHK』, (2023.6.2),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602/k10014086241000.html> (접속일:2023.10.31).
- 「大阪高松大司教区設立に向けて」, 『大阪カトリック時報』, 第846号(2023.10.1.), https://www.osaka.catholic.jp/no_side/jiho/2023/2310jiho/202310-all.pdf(접속일:2023.10.31).
- 「令和2年国勢調査 人口等基本集計結果」, 『総務省統計局』, (2021.11.30), https://www.stat.go.jp/data/kokusei/2020/kekka/pdf/outline_01.pdf (접속일:2023.10.31).
- 「藩政時代の松前」, 『松前町』, https://www.town.matsumae.hokkaido.jp/hotnews/detail_sp/

- 00000356.html(접속일:2023.10.31).
- 「外国人技能実習制度とは」,『公益財団法人 国際人材協力機構』, <https://www.jitco.or.jp/ja/regulation/> (접속일:2023.10.31).
- 「外国人実習生に第3の居場所を 函館の教会「疲れた心治す場所」」,『北海道新聞』, (2023.9.19), <https://www.hokkaido-np.co.jp/article/909736/> (접속일:2023.10.31).
- 「日本のカトリック聖職者による児童性的虐待 訴えは16件 司教協議会が調査結果を発表」,『Christian Today』, (2020.4.7), <https://www.christiantoday.co.jp/articles/27922/20200407/catholic-priest-sexual-abuse-in-japan-investigation.htm> (접속일:2023.10.31).
- 「宗教への「不信感高まった」4割 一築地本願寺調査: 仏教への抵抗は少ないが 関心も低い?」,『nippon.com』, (2023.4.7), <https://www.nippon.com/ja/japan-data/h01645/> (접속일:2023.10.31).
- 「終身助祭制度を導入」,『札幌教区ニュース』, 第29号(2019.7.31).
- 「桶田終身助祭叙階式行われる」,『札幌教区ニュース』, 第33号(2021.4.17).
- カトリック北1条教会運営委員会,「教会会計収支予算案」,『カトリック北1条教会総会』, 2005-2023.
- 高見 三明,「2019年「聖職者による未成年者への性虐待の対応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と課題」,『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20.4.7), <https://www.cbcj.catholic.jp/2020/04/07/20513/> (접속일:2023.10.31).
- 関川 泰寛,「安倍元首相の暗殺とカルト宗教 そしてキリスト教」,『日本神学研究センター』, (2022.7.20), <https://jcti.center/assertion/> (접속일:2023.10.31).
- 広野 真嗣,「カトリック神父が少年に性的虐待 東京サレジオ学園で2人の元園児が被害を訴えていた」,『文藝春秋』, 2019年3月号(2019.3.9), <https://bunshun.jp/articles/-/10781> (접속일:2023.10.31).
- 菊地 功,「2023年聖母被昇天の祝日@東京カテドラル」,『司教の日記』, (2023.8.15), <https://bishopkikuchi.cocolog-nifty.com/diary/2023/08/post-0bf96d.html> (접속일:2023.10.31).
- 大井 真理子,「安倍氏殺害事件で注目を集める「宗教2世」」,『BBC News Japan』, (2022.7.3), <https://bunshun.jp/articles/-/10781> (접속일:2023.10.31).
- 小野 忠亮,『北日本カトリック教会史: 人物/教会/遺跡』, (東京: 中央出版社, 1970).
- 勝谷 太治,「司祭の人事異動(2023年度)」,『カトリック札幌司教区』, (2023.3.3), <https://csd.or.jp/> (접속일:2023.10.31).

- 勝谷 太治,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防止に関するミサ対応について」, 『カトリック札幌司教区』, <https://csd.or.jp/> (접속일:2023.10.31).
- 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 「第16回世界代表司教会議(シノドス)のための日本の教会の回答書」,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22.8.15), https://www.cbcj.catholic.jp/wp-content/uploads/2022/08/Synodus16_jpn.pdf (접속일:2023.10.31), 1.
- 札幌教区小教区 再編諮問委員会, 「札幌地区の将来に向けた検討について」, 『カトリック札幌司教区』, (2023.4.27) <https://csd.or.jp/> (접속일:2023.10.31).
- 村井 早苗, 『キリシタン禁制の地域的展開』, (東京: 岩田書院, 2007).
- 総務省,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 人口動態及び世帯数調査」, 『政府統計の総合窓口(e-Stat)』, (2022.8.9),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stat_infid=000032224636 (접속일:2023.10.31).
- 学校法人藤学園・学校法人天使学園, 「プレスリリース」, 『学校法人藤学園』, (2023.3.31.) <https://www.fujijoshi.ac.jp/uploads/files/hojin/news/past/pressrelease20230331.pdf> (접속일:2023.10.31).
- “Cries of abuse in Catholic Church start to be heard in Japan”, *The Mainichi*, (2019.12.14),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191214/p2g/00m/0fe/040000c> (접속일:2023.10.31).
- Kageyama, Yuri, “Japan Catholic Church sued for damages in alleged sex abuse”, *AP News*, (2020.9.25), <https://apnews.com/article/7a947193a18318fa2b1e43346502ca7a> (접속일:2023.10.31).
- Martin, Alexander, “Catholicism Fails to Take Root in Japan”, *The Wall Street Journal*, (2014.8.12), <https://www.wsj.com/articles/BL-JRTB-17636> (접속일:2023.10.31).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995).
- “Resignations and Appointments, 15.08.2023”, *Daily Bulletin of the Holy See Press Office*, (2023.8.15),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en/bollettino/pubblico/2023/08/15/230815a.html> (접속일:2023.10.31).
- The Week Staff, “Catholics in crisis”, *The Week*, (2015.1.9), <https://theweek.com/articles/494879/catholics-crisis> (접속일:2023.10.31).

현대 일본 가톨릭교회의 위기와 대응: 샷포로 교구를 중심으로

정미지

일본의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인 다신교 신앙과 세속화, 고령화 등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교세를 크게 확장하지 못했고, 최근 수년간 성학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직자와 신도의 감소 및 고령화, 성소 부족, 재정 악화라는 위기 속에서 가톨릭교회가 모색한 대응과 구성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샷포로 교구의 사례를 분석했다. 샷포로 교구는 사제 감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신도가 사제의 역할을 최대한 분담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본당 통폐합과 같은 교구 장기 재편안에 관해서도 신도에게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장기간 굳어진 성직자 중심주의와 본당을 뛰어넘지 못하는 좁은 공동체 의식이 교구 재편의 걸림돌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재정비하고 문턱을 낮춘 즐거운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포함한 일본 가톨릭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교세 약화를 겪고 있거나 겪게 될 각국 교회에 변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현대 일본 종교, 고령화 사회, 교세 악화, 성직자 중심주의, 공동체 의식

The Contemporary Challenges and Responses of the Catholic Church in Japan: A Case Study of the Diocese of Sapporo

Jeong, Miji

The Catholic Church failed to expand its presence in Japan, and in recent years the crisis of the church has even accelerated with allegations of sexual abuse by clergy and COVID-19.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church has dealt with the current situations, such as aging and declining Catholics, a decrease in vocations, and worsening financial conditions, and how its members perceive them,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Sapporo Diocese. The diocese has encouraged laypeople to carry out the tasks of clergy to solve the issue of priest shortage, also asking them to discuss reorganization plans. In-depth interviews captured the members' perceptions: deep-rooted clericalism and a narrow view of the community seem to hinder innovation, and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ew system in line with the recent change and to make the community more open and enjoyable. These findings provide a useful precedent to the churches in other countries that may suffer from the decline of Catholicism.

Key Words: Religion in contemporary Japan, Aging society, Decline of Catholicism, Clericalism, Sense of community

논문 투고일	2023년 11월 3일
논문 수정일	2024년 3월 8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7일
